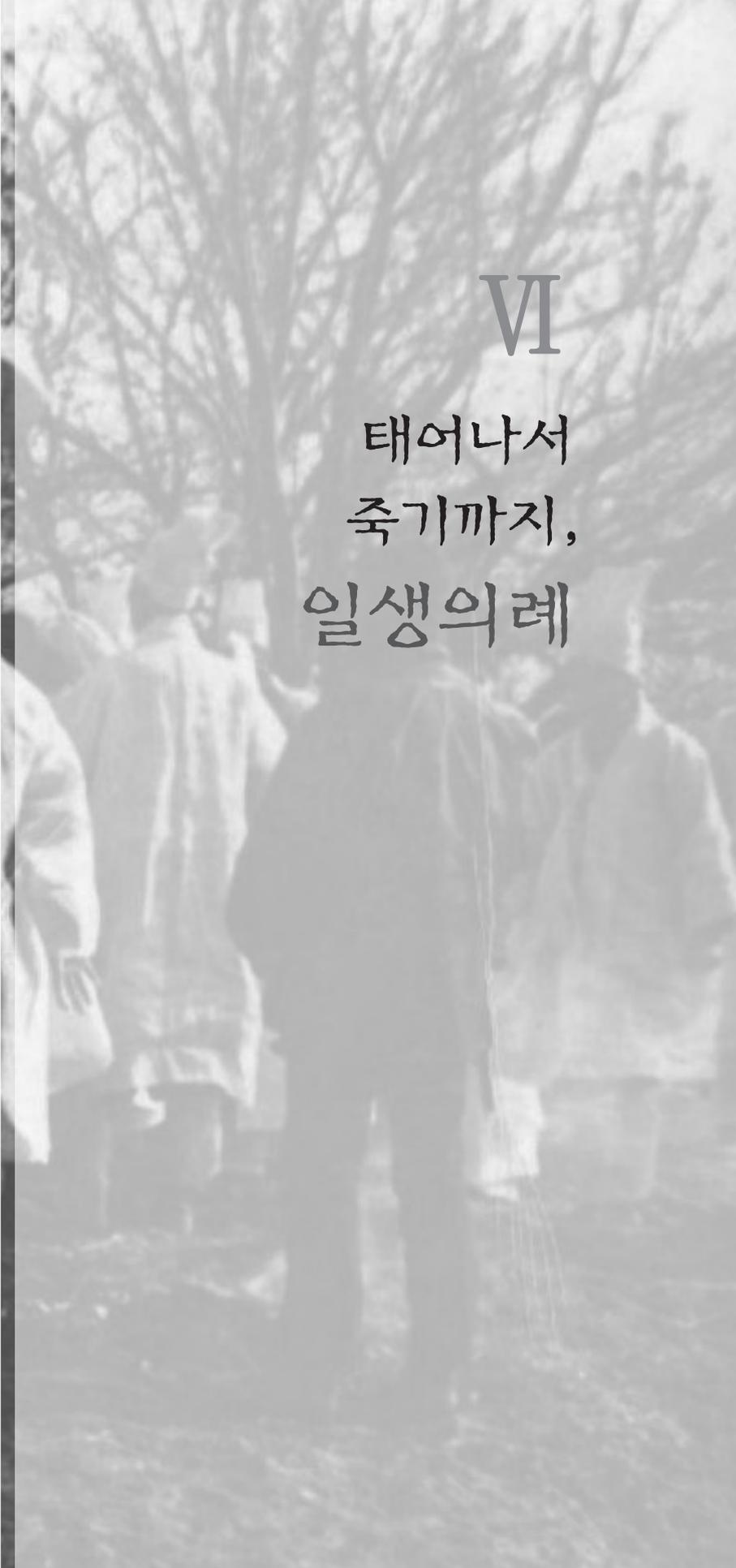




VI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생의례



Ⅵ.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생의례

일생의례(一生儀禮)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시간동안 경험하는 의례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과의례(通過儀禮)라고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생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생의례는 건강, 행복, 자손번성, 마을안녕, 집안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일생의례를 통해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며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떠나는 경우(여성의 경우, 혼인을 통해 출생지를 떠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일생의례는 대부분 출생지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생의례는 마을의 인문,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 마을의 일생의례는 마을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마재마을의 일생의례도 강과 고개가 있는 자연환경의 특성과 관련된 금기가 존재한다. 우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을에 사는 사람은 결혼상대로 꺼린다.'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금기가 생긴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혼례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강이라는 자연적 환경이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여가 고개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금기 또한 존재한다.¹⁾ '망자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 '상여가 고개를 넘으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인식에서 생겨난 금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상여는 고개를 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장지까지 나갔다. 이것은 마을에 들어오는 고개가 많은 마재마을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금기를 통해 한 집의 상례가 마을 전체의 안녕과 연결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 '상여는 큰 고개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경우도 있었다.

마재마을이 처한 자연적, 역사적 사건은 출산례와 제례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재마을에는 '새 집에서는 새 사람을 낳으면 안 된다.'라는 금기도 존재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마을의 전체가 파괴되거나 팔당댐 가뭄으로 인해 수몰이 되어 새로 집을 지었을 때에 친척의 집이나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국전쟁은 제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마재마을의 기제사 지내는 시기를 들 수 있다. 한국전쟁 1.4후퇴 이후 수복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있던 마을 사람이 포탄에 의해 죽거나, 방공호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한 미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현재 마을에서는 음력 1월 중으로 기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생의례를 행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하였다. 마재마을도 돌잔치, 혼인, 상장례 등을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일을 마을 전체의 일로 생각하는 상부상조의 마음을 남아,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 전체가 함께 도와 해결하고 있다.

마재마을 일생의례 자료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처럼, 개인과 집안별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재마을의 일생의례는 각 사례별로 기술하였다.

1. 미역국 먹는 날, 출산

출산은 보통 살던 집에서 이루어지나 예외도 존재한다. 마재마을에는 '새 집에서는 새 사람이 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어,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정희 씨는 넷째 아들을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지 않았던 집안의 큰집(현재 감나무집 안채)에서 낳았다. 그 이후 3명의 자녀는 현재 거주지(어부의 집)에서 낳았다. 전금순 씨는 1972년 팔당가(假)댐이 넘쳐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친정에 머물다가 양수리 병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과거에는 홍역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사주 보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덕소, 분원, 양수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김정희 씨는 자녀가 홍역을 앓았을 때 사주 보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밥을 지어 내버렸다. 임현심 씨는 덕소에 있는 병원에 다녀와서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배를 타고 분원 병원에 가려고 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늦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히 출생신고 또 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적에 본래 나이보다 어리게 등록되기 일쑤였다. 반대로 흥역으로 죽은 언니의 호적을 그대로 사용하여, 본래 나이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마재마을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임줄²⁾을 때문에 거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일순 씨는 아이를 낳으면 다른 것은 못해도 반드시 임줄을 쳤다고 한다. 아들은 고추, 딸은 숯과 솔가지를 새끼에 꽂아 때문에 걸어두었다. 김정희 씨는 아들은 고추, 숯, 솔가지를 끼고, 딸은 숯과 솔가지만 끼워서 일주일 정도 걸었다. 임줄은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라고 한다.

미역국과 밥³⁾을 아이의 머리맡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황을성 씨의 시어머니는 미역국과 밥을 상에 차려서 아이의 머리맡에 뉘다가 황을성 씨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였다고 한다.

땃줄치리는 일반적으로 태우는 경우가 많으나, 마재마을은 강물이 가까워 강물에 띄워 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조영진 씨는 첫째 아들의 땃줄을 가져다 깨끗한 강물에 가라앉혔다.

1) 임현심 씨의 사례

(1) 출산

임현심 씨는 24세에 마재마을 출신의 조영진 씨와 결혼하여 26세에 첫 출산을 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3남매를 모두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산정골의 집에서 낳았다. 큰아들과 딸은 마을에 거주하는 작은댁의 당숙모가 받았으며, 막내아들은 작은댁의 형님이 받았다.

집에서 출산할 경우,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임현심 씨의 시부모님은 혼인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마을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이 출산을 도운 경우이다.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임현심 씨의 살림이 어려워서 아이를 가지고도 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2) 금줄 이라고도 한다.

3) 삼신상 이라고도 한다.

나는 그때는 애 배고도 다 밭에 가서 날 때까지 일했어. 배가 이만해가지고 밭에가 일하다 힘들면 잠시 쉴다가 다시 일하고, 먹을 게 어딴어? 그때는 보리밥도 배부르게 못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첫째 아이는 전날 새벽에 밤새도록 진통을 겪다가 아침 7시에 출산하였다. 당숙모가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염려가 되어 밤에 집에 와 있었다. 당시 당숙모가 높게 쌓아올린 이불에 엎드려서 힘을 주고 있으면 출산이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현심 씨는 당숙모의 말대로 이불에 엎드려 힘을 주고 있다가 아이가 나올 때 방에 누워 아이를 출산하였다.

당숙모는 미리 챙겨둔 깨끗한 수건으로 아이를 닦고 미리 준비해 둔 포대기로 감쌌다. 포대기는 양수리장에서 하얀 용으로 된 것 두 개를 사두었다가 사용하였다.

(2) 땃줄 처리 및 임줄

땃줄자르기[땃줄가르기]는 임현심 씨가 직접 잘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숙모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 땃줄 자르는 준비만 도와주고, 임현심 씨가 실로 묶는 것도 자르는 것은 직접 하였다. 땃줄을 자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땃줄 가운데에 있는 피를 양쪽으로 훑어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게 실로 양쪽을 단단히 동여 맨다.
- ② 아이 쪽에서 한 뺨 되는 곳을 가위로 자른다.
- ③ 다시 엄마 쪽에서 한 뺨 되는 곳을 가위로 자른다.

땃줄을 문으면 짐승들이 파먹는다고 하여 보통 태우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에 띄워 보냈다. 임현심 씨의 경우에는 남편인 조영진 씨가 강물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땃줄을 지푸라기로 감싼 뒤에 돌을 묶어 잘 가라앉도록 하여, 깨끗한 장소를 찾아가 강물에 띄웠다.

아이의 배에 남아있는 땃줄은 동그랗게 말아서 아이의 배 위에 올려두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갓날 때는 요만해가지고 숨을 쉬나 안 쉬나 들여다보고 첫 애는 나도 그렇지. 소리가 들려? 숨을 쉬나 자나 들여다보면 배가 푹락푹락 숨을 쉬어. 옛날에는 갓난애가 조금 했어.

당숙이 임줄을 만들어서 대문에 걸어놓았다. 임줄은 고추와 숯을 달고 새끼를 꼬아서 만들었다.

(3) 산후조리

임현심 씨는 3남매를 두는 동안 입덧을 무척 심하게 하였다. 아이를 가지면 세 달이 들어서면서부터 입덧을 시작했는데, 먹기만 하면 다 토를 하였다.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기미가 끼고, 뼈쩍 말랐다고 한다.

김치가 싫어. 그때부터 토하고 못 먹는 거야. 토하지만 앓으면 되는데. 젊을 적에는, 아이구. 애를 낳고 그 방에서 비린내 나고 어떻게 밥을 먹을까? 냄새나서 그랬는데 내가 낳으니깐 아주 구수한 게 맛있어. 일 년 내 못 먹다가 먹으니 맛있게 먹지.

해산관은 아이를 받은 당숙모가 직접 하였다. 당숙모는 산모에게 밥과 미역국을 삼일 동안 해주었다. 이후 임현심 씨가 직접 밥과 미역국을 지어 4일을 더 먹고, 일주일 뒤에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다.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며, 김치와 같은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배변을 할 때 항문이 따갑다는 속신이 있어 삼갔다. 또한 아이가 푸른똥을 싼다고 하여 산모가 여름에 상추를 먹는 것도 삼갔다고 한다.

임현심 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도 몸이 성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와 딸에게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주려고 노력했다.

(4) 이름 짓기

아이의 이름은 한 달 안에 지어주었다. 임현심 씨의 첫 아이는 작은집 할아버지들이

지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는 홍역, 마마 등으로 인해 죽는 아이가 많아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본래 나이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반면에 언니가 죽으면 죽은 언니의 호적을 그대로 이어받아 본래 나이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임현심 씨의 큰아들도 2~3세 때 홍역을 크게 앓았다. 덕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배를 타고 분원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지만, 다행히 다음날 병세가 호전되었다. 당시에 임현심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서 무척 힘들었다고 회상하였다.

해는 넘어가는데 업어도 울고, 내려놔도 울고 그래서 당숙모한테 갔더니, 숨이 안차니까 괜찮아. 숨이 차면 어려운데 그냥 업고 기다려봐라 그래서 밤새도록 업고 있었지. 그랬더니 좀 나아지더라고.

(5) 아이 기르기 - 백일, 돌, 배냇머리, 기저귀

첫째 아이의 백일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였다. 아이의 돌 때만 집안사람들을 모셔서 아침에 미역국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임현심 씨는 백일사진이나 돌사진을 찍어주지 못해 무척 아쉬워하였다. 배냇머리는 백일 전에 잘랐는데, 아이의 머리가 너무 길어 빗머리가 날 것이 염려가 되어 양수리장의 이발소에 가서 잘랐다. 아이의 기저귀는 남편의 아비 떨어진 것을 조각조각 이어서 채워주었다.

임현심 씨는 큰 손주의 돌잔치를 마을사람을 불러 하였다. 동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돌잡이는 실, 연필, 돈, 공책 등을 올렸고, 아이가 무엇을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1960년대 돌잔치



임현심 씨 손자의 돌잔치

2) 전금순 씨의 사례

(1) 출산

전금순 씨는 1972년에 마재 출생의 조기환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첫째딸은 양수리 병원에서 낳았다. 마재마을에는 새로 지은 집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금기가 전해진다. 1972년에 8월에 팔당댐에 가뭄을 막았는데, 그것 때문에 장마가 나서 마을 전체가 잠긴 적이 있다. 그때 전금순 씨의 집이 떠내려가서 그해 집을 새로 지은 상태였다. 새집에서는 새색시가 애를 낳지 않거나, 부엌에서 낳아야 한다고 하여 양수리 병원에서 낳고 3일 뒤에 퇴원하여 시우리에 있는 친정에서 약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하였다. 산모가 몸조리를 하면 보통 한 달은 하였다. 그 이후부터 천천히 밥을 해먹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옛날 속담이 그렇대. 새 집에서 새색시가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두 아들은 마재마을에 있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였다. 집에서 낳을 때는 안방이나 자신이 쓰던 방 중에서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였다.

(2) 땃줄 처리와 금줄

전금순 씨는 직접 아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땃줄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땃줄을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땃줄은 바닥에 돌을 세 개 올려놓은 뒤에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땃줄을 올려서 태웠다고 한다. 땃줄이 젖어 있어 쉽게 타지 않았다.

아니 땃줄도 어디다 버렸나? 옛날에는 땃줄을 다 태워버렸지. 할미들이 집에서 해갓고, 그걸 삼 가르다고 하잖아. 땃줄 자르는 걸 삼 가르다고 하잖아.

금줄은 2주 정도 대문에 걸어두었다. 딸은 솔가지와 솥을, 아들은 빨간고추와 솥을 새끼줄에 매달아 걸어둔다. 금줄은 부정 탄 사람, 삼재 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

미라고 한다. 부정한 사람들이 집안출입을 하면 산모의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3) 삼신상 차리기

아이를 낳으면 삼신할머니에게 삼신상을 놓는다. 아이의 머리맡에 삼신상을 놓아둔다. 삼신상은 하얀 쌀밥과 미역국으로 마련했다. 전금순 씨의 친정에는 삼신주머니를 방 한 구석에 두었다. 삼신주머니 안에는 쌀을 넣고 겉에는 창호지로 고깔을 만들어 씌웠다.

전금순 씨는 자신의 손주들에게도 삼신상을 차려주었다. 자신의 손주들은 모두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나, 집에 손주들이 처음 왔을 때 머리맡에 삼신상을 놓아주었다고 한다.

(4) 아이 씻기기와 배냇머리

아이는 태어나면 몸을 바로 씻긴다. 그 이후로도 아침저녁으로 매일 씻기는데, 아침 저녁 중 한번은 반드시 씻겨야 한다. 그리고 골고루 씻겨야지 잘 자란다는 속신이 있었다.

옛날에는 한번은 세수를 먼저하고 한번은 다리발 있는 데서부터 씻기고 그랬는데, 그래야 골고루 자란다고 옛날 노인네들은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야 애들이 잘 크다 이거지.

배냇머리는 옛날에는 아무 때나 깎았다. 보드라운 배냇머리를 깎아줘서 머리카락이 억세게 나오게 하려고 깎아주는 것이라고 한다. 깎아낸 배냇머리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

(5) 이름 짓기

아이의 이름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남편인 조기환 씨가 직접 지었다. 전금순 씨의 손주들은 모두 절에 가서 지었다. 아이가 이름이 없는 한 달 동안은 아이를 특별하게 부를 일이 없다고 한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지. 옛날에는 조금 늦게 지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빨리 짓잖아. 우리는 아저씨가 다 지었고, 미정이, 민수, 민규. 그래 다 작명소도 안 갔어.

(6) 백일 · 돌잔치

백일은 아이의 할머니가 해주는 것이었다. 백일은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기보다 백일떡을 마을에 돌리는 것이었다. 백일떡은 백설기와 수수팔떡을 썼다. 수수팔떡은 수수쌀로 경단을 만들어 팔에 굴려서 동그랗게 만들고, 백설기는 시루에 찌가지고 접시에 썰어놓는다.

백일에도 삼신할머니에게 삼신상을 올린다. 삼신상은 미역국과 밥과 함께 수수팔떡, 백설기를 놓았다. 정성스럽게 차린 삼신상은 아이의 머리맡에 두었다. 삼신상을 올리는 이유는 아이가 건강히 자라라는 데에 있다.

머리맡에다 놓는다고. 그래갖고 잘 자라게. 아무개 잔병 없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노인네들이 기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갖다놓지.

돌에도 수수팔떡, 백설기, 미역국, 쌀을 놓은 삼신상을 올린다. 삼신상은 열 살까지 차리면 좋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보통 첫돌 때까지만 올렸다. 돌에는 돌잡이를 한다. 돌잡이 상에는 책, 돈, 실, 연필 정도만 놓았다.

요새는 마이크도 갖다놓고 별거 다 하는데 집에서 했는데 몇 가지나 돼? 실은 명이라고 하잖아. 돈은 돈을 잘 벌고? 연필은 글씨를 잘 쓰고?

2. 혼례 치르고 여덟달 만에 간 친정

1) 김정희 씨의 사례

(1) 결혼시기

김정희 씨는 19세에 마재마을 출생의 조순모 씨(작고)와 혼인을 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처녀들이 많이 붙잡혀간다고 이른 시기에 혼례를 올렸다. 김정희 씨의 언니는 16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

일본정치 때니까 처녀들도 많이 붙잡아갔다고. 그래 나는 거기 붙들려 가지 않고, 나는 19살이고 우리 영감은 20살 때 결혼했지. 가마타고.

또한 경제력으로 풍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른 시기에 시집과 장가를 갔지만, 먹고 살기 힘든 집의 경우에는 자녀가 제때에 결혼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세마루 혼인’이라는 혼인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세마루 혼인은 세 집에 각각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①집의 딸은 ②로, ②집의 딸은 ③으로, ③의 딸은 ①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세 집이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결혼방식 – 중매, 선, 궁합

중매는 김정희 씨 친정집안의 할머니가 하였는데, 김정희 씨는 혼례를 올릴 때까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할머니는 사주책을 가지고 다니며 사주를 보았는데, 시택에 오셨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나 김정희 씨와 중매를 주선하였다. 당시에는 집안 어른들끼리 결혼을 결정하였는데 가문, 재력, 외모, 궁합 등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한다.

선은 먼저 신부의 아버지가 보았다. 김정희 씨의 아버지는 마재에 와서 사위될 사람을 보았다. 김정희 씨의 아버지는 마재마을에 벗짚은 없고, 조짚만 쌓여있어 딸을 가난한 동네에 시집보내는 것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신랑 측에서는 시어머니와 시택 원출 아주머니가 선을 보러왔다. 시택과 친정 사이가

30리가 넘는 길이라, 시어머니와 시댁 원출 아주머니는 선을 보고 하룻밤을 자고 다시 돌아갔다.

두 분이 선달에 선을 보러 오셨어. 선달이니까 난 또 가서 빨래해가지고 추워서 시퍼래가지고 또 오죽했겠어? 그래 오니깐 저거 선보러 왔다고 노인네들이 와계시더라고. 나이도 어리고, 춤고 뭐 기분도 모르지. 뭐를 알아?

(3) 사주와 택일

선달에 선을 보고 바로 사주를 교환하여야 하는데, 신랑 측에서 사주를 보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시댁의 돌 갓 지난 아이가 자꾸 앓아서 죽으려고 해서 사주가 늦었던 것이다. 혼례와 장례가 겹치면 좋지 않다고 한다. 다행히 아이가 나아서 무사히 사주교환을 할 수 있었다.

사주는 중매를 본 할머니가 가지고 왔다. 신랑 측에서는 함에다가 신랑의 사주와 저고리 한 짝을 넣어서 보냈고, 신부 측에서도 신부의 사주를 보낸다. 사주에 적힌 신랑과 신부의 생년월일로 택일을 하는데, 혼례 날은 이듬해 2월로 정하였다. 신랑과 신부의 사주로 궁합도 보았다고 한다.

궁합은 사주쟁이 할머니가 보셨지. 궁합이 좋다고 했어. 근데 좋긴 뭘 좋아?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니까. 마흔 되던 해 윤사월 초이튿날에 돌아갔어. 초하루 날이 제사야. 20년도 같이 못 산거지.

(4) 함

가마를 탄 신랑은 함진아비를 앞세우고 신부의 집에 도착한다. 당시 신랑의 함진아비는 동네서 나이 많은 사람이 하였다. 집안어른은 보통 하지 않고,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이 함을 지어야 했다.

신부 집에 도착한 함진아비는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함 사세요.'라고 소리친다. 신부의 아버지가 마중 나가 함값을 지불하고 함을 맞는다. 함이 신부 집에 들어오면 상에 떡시루와 함을 올리고 서로 양측이 인사를 하였다. 신부 측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함을 받는다.

신부 측에서 받은 함에는 세 겹으로 접은 혼서지와 신부가 대례 때 입을 옷이 들어있다. 신부는 함에서 속치마, 속저고리, 겹치마, 겹저고리, 단속곳, 바지 등을 꺼내어 입는다. 대례 때 입을 옷은 신랑 측에서 가지고 오나, 족두리는 신부 동네에 있던 것을 사용하였다.

일본정치 때가 돼서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고, 놋쇠도 없어. 둘째 시아주 버니가 일 하러 다니셨어. 그랬는데 이끼루라는 것으로 실반지 하나 해줬어. 그리고 시집을 왔어.

(5) 대례

대례는 신부 집에서 행한다. 신부는 함에서 꺼낸 옷과 족두리를 쓰고, 연지 세 군대를 찍는다. 신부화장은 화장에 능하고 결혼을 한 동네 여자가 했다.

대례상에는 밤, 대추, 사과, 배 다식, 과자, 떡, 술 등을 올렸다. 촛불에 불을 붙이고 양쪽에 서서 절을 하였다. 신부에게는 나이 많은 여자 둘이 양쪽에 서서 절 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신랑에게는 따라간 사람이 옆에서 절차를 알려주었다.

지금은 색시들이 술도 먹는데 옛날에는 색시가 술을 먹어? 그냥 (술잔을) 대었다 그냥 가지.

대례가 끝나면, 친정 사람이 대례상에 있던 닭을 날리며 신랑신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말을 한다.

(6) 혼수

대례를 지내고 바로 신랑 집으로 왔다. 이때 김정희 씨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혼수를 가지고 시댁으로 간다. 혼수는 옷을 한 죽(10벌)이 넘게 하였는데, 저고리, 치마, 버선, 옷, 바지, 누비바지, 핫바지, 겹바지 등을 하였다. 혼수를 가지고 오니 마을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나왔다고 한다. 김정희 씨는 한국전쟁 당시 옷가지를 독에다 묻고 나왔는데 하필 포가 떨어져 불타버려서 지금까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신랑이 입을 바지저고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 신부가 사용할 반상기 네 벌을 하였다. 당시에는 일제가 낫쇠를 다 뺏어가는 상황이라 낫그릇을 하지 못하고 사기로 된 반상기를 혼수로 가져 왔다고 한다.

그 외에 김정희 씨가 사용할 삼층장과 세경(화장대), 장분과 구루마도 가져왔다.

장분 알아? 모르지? 장분은 네모반듯한 것을 물에다 개서 그걸로 분을 짚어 바르고 또 인제 구루마 저거를 하는 거야. 그걸 바르고 고만이지. 지금 들은 몇 가지를 발라. 아휴. 웃기지.

(7) 사당차례와 폐백

김정희 씨는 시댁까지 가마를 타고 왔다. 당시 시댁에 주당⁴⁾이 집안으로 들었다고 하여 시댁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가고 없었다. 둘째 큰아버지가 ‘왜 사람이 없느냐?’고 소리를 쳐서,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나와서 신부를 맞이했다.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갈 때는 얹어놓은 바가지를 깨고 들어간다.

나쁜 저거가 있으면 그거 없지라고 밟나봐. 파드득하고 깨지지.

시댁에 오면 먼저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사당차례를 지낸다. 사당차례상은 방이나 마루 같은 장소에 차리고, 차례상에는 닭 한마리, 대추, 밤 동구리, 술 등을 올린다. 신랑과 신부는 차례상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사당차례를 지낸 뒤에는 폐백을 드린다. 폐백은 시댁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사당차례 치우고 그 자리에서 폐백 드리지. 아들딸 낳으라고 밤 대추 빼서, 삼형제만 낳으라, 오형제만 낳으라, 치마보에 던지면 받았지.

4) 혼례 때 꺼리는 액운이다. 김정희 씨에 의하면, 신부 가마가 신랑 집에 들어올 때, 주당이 집안에 들면 밖으로 피하고, 집밖에 들면 집안으로 피한다고 한다.

(8) 초례와 시집살이

폐백이 끝나면 시댁식구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이때 신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한다. 이후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들은 신방을 지킨다.

좌우간 그럼 또 신방 지킨다고들 문구녕들을 뚫고 들여다보고 야단이지.
그럼 옷 벗기고 그냥 자는 거지.

초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문안인사를 드린다. 집안일은 며칠 동안은 하지 않다가 점차 거들며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김정희 씨에게는 두 명의 동서가 있었다.

(9) 근친과 세간내기

당시에 시집을 오면 돌세(1년)가 되어야 친정에 갈 수 있었다. 이것을 근친이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농사를 지어서 떡 한 동구리, 엿 한 무재비, 친정어른들이 신을 버선을 가지고 조군[가마]을 타고 간다. 김정희 씨의 경우에는 2월에 결혼을 해서 8개월 만에 근친을 간 셈이었다. 혼례를 가을에 할 경우에는 정확히 1년 만에 근친을 가는 수도 있었다.

근친을 가면, 친정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온다. 친정집에서도 떡, 엿, 버선 등을 가지고 조군을 타고 시댁으로 돌아간다.

옛날에는 첫 애를 낳아야 세간을 낼 수 있었다. 김정희 씨도 첫 애를 낳고 마재에서 세간을 내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못할 곳으로 갔다고 해서 시댁 옆에 있는 가옥에서 살았다. 이후 서울에 세간을 내어 2~3년을 살다 다시 마재로 돌아왔다.

세간을 냈는데 안살봉 살살봉으로 갔대요. 못갈 데로. 그래서 도로 집에 들어와야지. 할아버지(남편)가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어 서울 가서 살았는데, 그때 차도 없었어. 배로 세간을 싣고 땡겼어.

2) 정규혁 씨의 사례

교사 생활을 한 정규혁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원회 간사의 자녀와 혼인을 하였다. 후원회 간사에게 딸이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고, 이모의 중매를 통해서 혼인이 성사되었다. 부인의 고향인 남양주 진중리에서 대례를 올렸다. 대례를 올리고 나서는 신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마재마을로 출발했다.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마을사람이 운전하는 2.5톤 트럭을 타고 큰 고개를 넘었다. 마재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마을사람을 불러 모아 마을잔치⁵⁾를 하였다.

결혼한지가 60년 됐어. 내년엔. 내가 27에. 전쟁 끝나고 만났어. 동네마다 상여 있고 상례 치르는 거 있고 또 혼례도 동네마다 관례 활옷에 다 있고. 이장이 관리하고. 절차라는 게 세습이니깐.

당시에는 혼례 전에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규혁 씨는 사주가 오가기 전에 서울 덕수궁에서 만나기도 하였다. 1954년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가옥과 종로 전차 등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3) 이한수 씨의 사례

이한수 씨는 경기도 광주 출생의 부인과 31세에 혼인을 하였다. 당시에는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를 통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한수 씨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부인동네에 거의 다 가서 가마로 옮겨 타고 들어갔다. 대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에는 가마는 부인이 타고, 이한수 씨는 걸어서 마재마을로 돌아왔다.

4) 조영진, 임현심 씨의 사례

충청도 공주 출신의 임현심 씨는 마재 출신 조영진 씨와 혼례를 올렸다. 능내에 사는 큰언니집에 잠시 와서 살다가 1년 만에 조영진 씨를 만나 혼례를 올렸다. 능내에 살던

.....
5) 뒷잔치 라고도 한다.

조영진 씨의 칠촌 제당숙이 증매를 보았다. 당시 임현심 씨는 24세, 조영진 씨는 23세였다.



혼례 가는 길. 선글라스는 쓴 사람이 함진아버이다.
뒤로 가마가 있다.



조영진, 임현심 씨의 대례 장면

5) 조기환, 전금순 씨의 사례

남양주 시우리 출신의 전금순 씨는 1972년 마재 출신의 조기환 씨와 혼례를 올렸다. 당시 시우리에 살던 만신이 시어머니에게 왔다가 증매를 놓았다. 혼례는 시우리에서 올렸고, 마재마을에 들어올 때는 택시를 탔다. 혼례를 올리기 전에 약혼식을 올렸다.



조기환, 전금순 씨의 약혼식



남양주 시우리 전금순 씨의 친정에서 올린 대례



혼례 후의 조기환, 전금순 씨
마재마을로 타고 온 택시가 뒤에 있다.

3. 마을 전체가 돕는 상례

과거 마재마을에서는 보통 3일장을 하였다. 5일장, 7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흔하지는 않았다. 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팔죽이나 인절미, 시루떡 등으로 부조를 하였다. 돌아가신 분의 첫 제사는 크게 하였는데 마을 사람 전체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제삿날 집 앞에는 어김없이 아이들이 줄을 서고, 과일, 떡, 빈대떡, 한과 등을 조금씩 싸주었다.

또한 상례 이후에는 대청마루에 상청을 차렸다. 삼면을 광목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그 밑에는 솜으로 동그랗게 장식을 해 놓았다고 한다. 상청 안에는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상식을 올렸다. 상식은 밥과 반찬을 놓고 곡을 하는 것이다. 상청은 일년동안 하는 집도 있었고, 49일만 하는 집도 있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마을사람 전체가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 남자들은 부고를 돌리고, 여자들은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왔다. 음식은 팔을 넣고 찰밥을 하고 육개장을 끓이기도 하였다. 초상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상갓집 일을 도왔고, 상갓집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 최근에는 장례식을 병원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아 과거와 같은 상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최근에 집에서 상례를 치른 사례는 조기환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인 2005년이였다. 당시 마을사람들이 도와서 고인이 살던 집에서 3일장을 무사히 치렀다. 조기환 씨는 당시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소장하고 있다. 당시 상례 영상에는 발인을 마치고 집을 떠나는 상여행렬, 장지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 조영진 씨의 선소리에 맞추어 달구질을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마을에서 상례를 치르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오래 거주하였던 분은 병원에서 발인절차를 마치고, 마을의 거주하던 가옥에서 노제를 지내고 장지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1월 9일 오후 8시경에 돌아가신 황토마당 할머니 박흥녀 씨(작고)는 청량리 삼육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졌다. 부고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돌아가신 다음날에는 마을 스피커를 통해 마을에 전체에 고인의 죽음을 알렸다. 돌아가신 당일과 다음날에 마을주민들은 병원을 찾아 고인을 애도하였다.

3일째 되는 11일 오전 9시 경에 발인을 마친 장례행렬은 마재마을을 찾았다. 10시 경에 고인이 살던 집으로 와서 사위가 영정사진을 들고 집을 한 바퀴 돌고 노제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평생 살던 곳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제는 과일, 포, 적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노제를 지낸 순서는 아들, 딸, 사위 등 가족이 먼저 하고, 고인의 친구들도 가서 술을 올렸다.

노제를 지낸 뒤에는 광주 경안에 있는 집안 선산으로 운구차가 출발하였다. 이때 마을의 남자들은 대부분 장지까지 따라가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

고인과 평생을 함께 마을에서 교류를 해온 김정희 씨는 며칠간 꿈에서 고인을 봤다고 한다.

아이구. 나 황토마당 할머니 꿈에 본지가 오늘 사흘째가 그런가본데. 그래서 황토마당 할머니가 돌아갈라나 그랬지. 그러니 어제께 열두 시안에 돌아 갔나본데? 그러니 내일이 장사지?

이처럼 상례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마재마을에서는 여전히 마을사람이 함께 상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1) 사진으로 보는 상례(조영진 씨 소장)



상여가 나가기 전 곡을 하며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



상여가 나가기 직전에 제를 올리는 모습



장지로 향하는 상여행렬
- 상여는 고개를 넘지 않는다는 금기로 인해 먼 길을 돌아나간다.



상여행렬
- 상여는 마을사람들이 메며 상여 뒤를 상주가 따른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따른다.



장지에서 찍은 사진
- 왼쪽에서 두 번째 복을 멘 사람이 당시 상여소리와 달구질 소리를 도맡아서 하였다.



장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 뒤편으로 달구질 중인 묘 자리가 있다.

2) 상례 절차

(1) 임종과 초혼

죽음이 가까워오면 부모님을 안방 아랫목에 모신다. 자녀들은 부모의 곁에 머물며 지켜본다. 이때 마을사람들이 멀리 나가있는 자손에게 가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부모의 곁을 지키고 있는 자손이 부모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저는 자손이 붙들고 옆에서들 있고, 운명할 때까지 있고들 해서.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알지. 벌써 눈 감고 저거 하는 건데.

환자의 임종이 확인되면 초혼을 부른다. 고인이 사용하던 옷가지를 대문간에 들고나가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가시라.'고 외친다고 한다.

(2) 수시

수시는 고인의 몸을 펴서 뒤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마재마을에서는 '수세를 거둔다.'라고 말한다. 수세 거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 한다.

수세를 거둔 고인의 신체는 칠성판 위에 올려둬서, 사랑이 있는 집은 사랑방에 모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넌방에 모신다. 돌아가신 날짜를 확인해서 손 없는 쪽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모신 신체의 앞에는 병풍을 쳐서 가려놓는다.

손 없는 쪽으로 놓지. 아니 이렇게 날짜 잡아서. 흔히 하루 이틀은 동에 있고, 사흘 나흘은 남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 하루 이틀은 동쪽으로 안 놓고 하는 식이지. 놓는 날에만 맞췄지.

(3) 사자밥 차리기

초혼을 부른 뒤에 사자상을 차려서 둔다. 상 위에 접시 세 개를 올리고, 각 접시에는 밥을 떠놓는다. 밥 가운데에는 십 원을 하나씩 올린다. 또한 ‘사자 짚세기’라고 하여, 짚신 한 켄레를 놓아두었다. 사자밥에 올려진 것은 상여가 나가면 태우거나 처리한다.

(4) 부고 및 상부상조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사람들은 초상집에서 일을 도왔다. 우선 초상이 나면 이웃에서는 막걸리와 팔죽을 부조했다. 옛날에는 돈으로 부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을 남자들은 주로 부고를 돌리는 역할을 하였다. 부고는 고인의 마을밖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다. 일단 초상이 나면 마을 남자들은 모여 부고를 작성하였다. 부고에는 고인의 이름, 사망한 일시와 시간 등을 적는다. 그런 후에 각자 지역을 맡아서 부고를 돌리러 간다.

마재마을에서는 서울, 충청도, 강원도까지도 부고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부고는 대문에 꽂아두는 경우가 많다. 받는 쪽에서는 수고한다고 술을 주기도 하였다.

(5) 염습 및 성복

염습은 고인의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것이다. 염습은 고인의 집안에서 담당한다. 염습을 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

상주는 염습이 끝난 이후에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그전까지는 평소 입던 옷에 팔 한 쪽을 빼놓는다. 상주가 입을 상복은 마을에서 상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와서 만든다. 옷감은 삼베를 사용하는데, 미리 준비해놓거나, 분원이나 양수리의 상포집에 가서 사 온다.

성복제는 마당에서 정한수를 상에 떠놓고 한다. 상복으로 갈아입은 상주는 사방으로 절을 한다. 지팡이는 상주만 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버드나무를 사용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상복으로 갈아입으면 이때부터 곡을 시작한다.

(6) 발인 및 장례

장례절차는 보통 3일장으로 치른다.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5일장이나 7일장을 지내는 경우도 있다.

상여는 상가의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꾸민다. 이후에 관을 모시고 나와 상여에 묶고, 발인제를 지낸 후,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나간다. 상여행렬의 순서는 선소리꾼, 상여, 상주 순이고 그 뒤로는 집안사람, 동네사람 순이다. 보통 10~12명의 상두꾼이 상여를 멘다. 상여는 나가면서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상여소리를 한다.

상여가 나가기 직전에는 선소리꾼의 '나무세'라는 소리에 맞추어 고인과 집안 식구들이 절을 한다. 상두꾼들은 선소리꾼의 '나무세'라는 소리를 똑같이 받는다. 이 과정을 세 번 되풀이한다.

상여가 나가기 직전에는 '여보소 상두꾼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내경내경 시경말고 앞꾸제비 길밝히고 뒤꾸제비 발맞추고 곱게곱게 모십시다. 인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삼월 봄이되어 꽃이피면 돌아오나 잎이 피면 찾아올까 다시는 올 리가 만무로다.'라는 소리를 하고 상두꾼들은 '어허허허허'라고 받는다.

다음은 장지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하는 상여소리이다. 선소리꾼은 상여소리를 장지에 갈 때까지 반복하여 부른다. 다음 부분을 잊었을 때에는 생각이 날 때까지 '받는 소리'를 한다.

어허허어허허 (어허허어허허)

간다간다 나는간다. 어허허어허허

이세상을 하직하고 북망산천을 찾아간다. 어허허어허허

어찌갈까 이내몸이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허허어허허

여보소 상두꾼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어허허어허허
앞꾸제비 길뵈히고 뒤꾸제비 발맞추어 어허허어허허
명전공포 불뵈히고 곱게곱게 모십시다. 어허허어허허
(후략)

마재마을에서는 상여가 고개를 넘으면 마을에 좋지 않다고 하여, 고개를 넘지 않고 강변을 따라 돌아나갔다. 이때 노제는 집안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제상을 차려놓고 지냈다. 제상에는 술, 삼색과일, 북어가 올라간다. 고인 마지막 가는 길이 서운하다고 술 한 잔 먹고 가라는 의미라고 한다. 노제를 지낼 때는 상두꾼들도 술을 먹으며 쉬었다.

장지에 도착하면 미리 파둔 구덩이에 관을 하관한다. 만약에 탈관을 할 경우에는 구덩이 안에 시체가 들어갈 만큼 회를 다져놓았다고 한다. 달구질은 총 세 번하는데, 처음에는 구덩이에 회를 채워 넣고 하는 회달구질, 두 번째는 회 위에 흙을 덮고 하는 달구질, 세 번째는 봉분을 쌓고 떼를 입혀서 하는 달구질이다.

다음은 달구질소리이다. 달구질은 선소리꾼의 목소리에 맞추어 상두꾼들이 막대기를 들고 실시한다.

에헤허~달구 (에헤허~달구) 세 번
여봄소동지네들 (이호리 달구)
이네한말씀들어를봄소 (이호리 달구)
잘헌다먼저말구 (이호리 달구)
못헌다고서나중을말고 (이호리 달구)
일심으로 발맞추어 (이호리 달구)
한발두뺨 달구질을 (이호리 달구)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호리 달구)
(후략)

(7) 삼우제, 소상, 대상

삼우제는 발인 후 사흘 만에 산소에 가서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삼우제를 올린 뒤에

는 집에 상청을 차려놓고 매일 식사를 올렸다. 상청은 집 마루에 차려놓았는데 상위에 제상을 차려놓고 고인의 사진이나 종이를 접은 가주를 올려두었다.

상청에는 아침저녁으로 먼저 식사를 올렸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아침저녁으로 곡을 한다. 고인의 첫 제삿날이 소상이고, 두 번째 제삿날을 대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삼년상을 마치게 된다. 대상이 끝나면 상청을 치운다.